4강. 한국을 빛낸 건축가와 우리의 건축을 이해하다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수근, 김중업 건축가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 건축가들과 작품을 만나본다. 건축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한국 건축의 발전과 변화를 느껴본다.

■ 한국 현대건축의 시기

1. **해방~ 1980년대 중반 :**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 급격한 도시화의 시기

2. **1980년대 중반~외환위기 1998년 :** 올림픽, 경제 성장의 결실의 시기
   민주화 운동과 문민정부,외환위기를 맞았던 시기

3. **2000년~ 현재 :**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경제의 양극화시기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
   대형 건축사사무소 & 아뜰리에 양극화의 시기

■ 한국의 현대건축가

1. **1세대 건축가 : 1960~1970년대 중반, 김수근,김중업,이희태,김종성 外**
   -현대건축을 어떻게 전통건축과 결합할 것인가? 이슈의 시기
   -건축가, 예술계와 교류, 건축가의 자존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
   -군사 정권의 지원, 정권의 정당화, 군사 문화의 결핍성을 숨기는 수단으로서의 건축

2. **2세대 건축가 : 1980~1990년대, 김원, 우규승, 김인철, 방철린, 조성룡 外**
   -한국성의 재해석, 건축을 통한 공공성의 회복
   -상업자본과의 거리 두기, 작가적 정체성을 공고화 함

3. **3세대 건축가 : 1990~, 승효상,김개천,김억중,이필훈 外**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건축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서 열린 실험과 건축유형의 다양함 추구
   -기업형사무실의 조직, 자본, 기술, 관리의 위력과 잠재력 확보
   -해외에서 유학과 실무경험이 많은 건축가

■ 한국 1세대 건축가

1. 김수근(1931~1986)

   - 건축, 예술 종합지 월간 《공간(空間)》을 발행
   - 1971년 : "공간사옥"을 건립, 소극장인
   '공간사랑'을 전위극, 무용, 전통, 연희 등 각종 문화 활동의 장소로 개방

"나의집은 자궁입니다. 자궁의 집은 어머니이며,어머니의 집은 가옥이며, 집의 집은 환경입니다. 집을 주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궁극공간 Primary Space '
  필연적으로 주거를 위한 공간 / Secondary Space / 큰 이익과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창고,공장,사무실 등)

Ultimate Space / 인간성을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공간개념
해프닝이 있는 Space / 공간의 연출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 실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

- **70년대 초 '자갈리즘'**
  human scale 고려 / 잘게 쪼갠다는 의미이며, 공간과 재료의 선택에도 철학을 적용

- 공간사옥 (1971~1975) : 궁극공간, 모태공간의 공간개념, 한국적 공간표현

2. 김중업(1922~1988)

- **1952~1956년 르코르뷔지에 연구소 건축학·도시계획 연구**
- **한국 특유의 형태 조영의 맥을 따르는 작품활동**
- **강력한 원시주의 : 건물의 주요 모티브로 직각 좌표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불규칙한 곡선의 사용**

- 한국의 전통 건축이 가지는 뛰어나고 독특한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재구축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인간의 이성적 측면보다는 비합리적 정서, 감성, 영감 등을 중시하는 건축가
- 기하학적인 딱딱함에서 벗어나서 콘크리트의 자유스러운 곡선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작품들
- 프랑스대사관, 1971~1975, 한국 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의 원점
  "건물의 조형과 배치에서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우아한 품위를 잘 표현한 건축이다"
- [꿈, 시, 음악, 웅장, 감동] 등을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한 진정한 건축의 주제를 표현

" 살고 싶어 져야 하잖은가, 꿈이 있고 시가 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정다웁게 모여살고 싶어져야 하잖은가."

3. 엄덕문(1919~2012)

- **세종문화회관,1973**
  한옥의 안채와 별채, 두 건물을 이어주는 회랑과 안마당 개념을 도입
  동산을 오르는 듯한 계단과 마당, 전통 개념을 현대건축으로 해석한 건축물
  대궐건축의 기둥과 문,창살 무늬,추녀선 모티브, 육중한 열주, 두꺼운 추녀, 완자문 벽장식

4. 이희태(1925～1981)

- **국립극장, 1973**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손으로 세운 문화공간
  '한국성' 을 탐구한 고민이 묻어나는 건축물로 평가
  일렬로 늘어선 14개의 원형 기둥, 20m 높이에 떠 있는 물결모양 지붕 계획
  "국립극장은 경회루의 필로티와 기둥을 재현한 우리 건축물이다."

강영란/ kyr824@hanmail.net / 010-6391-8283
http://blog.daum.net/kyr824